

장마철에 배수 개선 공사...광주 복구 '능장행정' 논란

작년 괴물폭우 피해 신안동 일대서 최근 우수관·배수펌프장 설치 시작 9월 준공... '올여름 무용지물' 지적 區 '예산 확보 시간 소요... 신속 추진'



광주 복구가 지난해 괴물 폭우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신안동 일대에 대한 배수 개선 공사를 장마철에 진행해 '능장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우수관과 배수 펌프장 2개가 설치되는 신안교(왼쪽)와 신안교 일원 배수 개선 공사 안내판. /윤찬용 기자

광주 복구가 지난해 괴물 폭우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신안동 일대에 대한 배수 개선 공사를 장마철에 진행해 '능장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복구에 따르면 신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지난 9일 착공해서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이번 공사는 지대가 낮은 신안동 353-10 일대에 우수관과 배수 펌프장 2개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광주시 특별교부금 8억1천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설치되는 우수관은 지름 450-800mm, 길이 344m이며 배출 지점은 서방천이다. 배수 펌프장은 1분당 최대 12t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여서 이를 통해 여름철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복구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사 시점이다. 공사가 한창일 때가 한 여름이고 보통 이 시기가 장마철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신안동 일대는 지난해 7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상가 수십채가 물에 잠겼으며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에 복구는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민 설명회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종준 전 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은 "당초 5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었지만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야 공사가 시작돼 아쉽다"며 "올해 장마철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대서 복구의원은 "지난해 수해 이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안동 주민들은 비 예보만 나와도 불안에 떨었다"며 "지금이라도 공사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 기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별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구 관계자는 "구비가 아닌 별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며 "지난 1월에 예산을 신청했고, 바로 다음 달에 교부 받은 이후 설계와 계약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신안교 일대 배수 능력이 향상돼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찬용 기자

車 '골드번호' 빼돌려 접대받은 서구청 공무원들

區, 지난달까지 16명 상대 조사해 최근 3년간 조작 등 346건에 달해 市에 징계 의결 요구... 수사 의뢰도

인기가 높은 차량번호 일명 '골드번호'를 빼돌려 식사 제공 등 향응을 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제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월9일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차량 신규·이전 등록 관련자 13명과 변경 등록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번호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골드번호를 빼돌리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성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뤄졌다.

골드번호는 '9999', '8888'처럼 같은 숫자가 반복되거나 '1004', '9111'과 같이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한정적인 만큼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번호판 배정은 자동차등록번호 관련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나온 10개 중 신청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골드번호를 얻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무작위로 나온 것에서 골드번호가 있을 경우 일반 민원인 차량에 임의로 부여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보해서 대행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작위 추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직접 번호를 임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부여된 번호는 총 346건에 달했는데, 일부 연부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는 총 10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중 6명은 광주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징계 3명은 8급 1명, 9급 2명이며 3명의 경징계 대상자는 모두 8급이다.

행정 처분을 하기로 한 나머지 4명의 수위와 급수는 훈계 1명(9급), 주의 3명(8급 2명, 9급 1명)이다.

신분 조치 대상자가 아닌 6명 중 4명은 공무원이다. 이 외 2명은 부서장과 자동차 등록 관련 담당인데, 서구는 해당 업무가 담당자 처리로 완결되는 만큼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각 불분, 훈계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향응 규모를 밝히지 못한 만큼 서구는 징계 의결 요구 대상자 6명과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연상 기자

청부살인 시도·해외도피 50대 '징역 7년'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가 실패하자 해외로 도피했던 50대가 범행 20여 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씨(50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4년 5월 목포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을 건졌고 황씨는 2007년 8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황씨는 해외에서 가정을 꾸리며 지내왔는데,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돼 지난해 국내 송환됐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재영 기자

'회생 절차' 유탑 계열사 '분양 위반' 재판대에

광주 금남로 오피스텔 계약 관련 대표·법인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최근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간 유탑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17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대표 B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유탑그룹 계열사인 A 건설사는 동구 금남로에 약 48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해약 사유 등을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류상에 기타 공용 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행위는 A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한 분양자의 수사 의뢰로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A 건설사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인들이 불복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A 건설사 측은 객관적 사실을 크게 다투진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A 건설사 측은 "당초 고소인 측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래개수사를 의뢰했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추가 변론 등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광주회생법원은 A 건설사를 포함, 유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최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재영 기자

'성 비위' 의혹 광주 서부서 간부 대기발령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서 A 경찰에 대해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찰은 최근 함께 회식을 했던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이 경찰청에 접수되면서 분리 조치 처원에서 대기발령이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감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에선 지난해에도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빚었다. /이연상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